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옮겨달라”

담양 창평 주민들 이전 촉구 집회 “40년간 소음 공해·재산 피해” 군 당국 “상부 보고 후 답변”

담양 창평면 주민들이 지역 내 소재한 예비군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시가지 집회와 행진을 갖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창평비상대책위원회(이하 창평비대위)는 지난 17일 군 부대 주관 주민 의견청취 행사에 앞서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창평면 일대에서 예비군 훈련·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시가지 집회와 행진을 가졌다.



지난 17일 군 부대 주관 주민 의견청취 행사에 앞서 담양 주민들이 예비군 훈련·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화 국방개혁 소개에 이어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광현 담양군 부군수를 비롯해 창평면장·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고민석 창평비대위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농산어촌은 붕괴되고 있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과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이 발효되면 그야말로 우리 농산어촌은 위기에 처할수 밖에 없다”며 “담양군과 창평지역민은 대한민국의 농산어촌 희망 공동체로서 위

상을 다지고 있는 지역이다. 군 당국은 지역민의 이러한 노력이 불거져서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군부대를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예비군 시설을 시대상에서 적합한 제3의 장소로 이전에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방정책이 진정한 국방개혁의 길임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해당 문제를 상부에 보고 후 비대위 측에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시, 전남도 일자리 평가 2년연속 최우수상

지원센터 건립·맞춤형 고용 서비스 나주시가 전남도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최근 열린 ‘2021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에서 22개 시군 중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 투자유치 분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은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성과가 우수한 시·군 지자체 평가 선정, 좋은 일자리를 늘린 우수 기업 인증서 수여, 유공기관·유공자 노고에 대한 수상과 축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나주시는 지난해 대비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지표 개선을 비롯해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률, 홍보실적,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알선과 특화 맞춤형 교육, 시책 평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지역 혁신성장형 전략사업인 ‘에너지·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6대 프로젝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확대를 도모해 244명의 청년이 취업 문턱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배전 기반’, ‘전기에너지 융합’, ‘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 등 단계별 취업 교육 등 맞춤형 일자리 교육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상담’, ‘1:1취업컨설팅’, ‘취업스터



다’, ‘온·오프라인 일자리연계’ 등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고용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찬군 나주시 부시장은 “지난 11월 개소한 일자리종합센터를 거점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갖춘 산업 여건에 적합한 고용·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son@

장성군 로컬푸드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실시한 2021년 로컬푸드(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로컬푸드 지수 평가는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추진한 로컬푸드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다. 올해에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에서 분상 10개, 특별상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장성군은 ▲다품목 생산체계 지원 ▲로컬푸드 농가 참여율 ▲지자체장 의지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분상을 수상했다. 로컬푸드 지수 평가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장성군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

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농협 협력모델인 ‘장성형 푸드플랜’을 구축한 군은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푸드플랜 중간지원조직인 먹거리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960여 명의 중소농업인을 조직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현재, 공공형 운영조직 구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광덕리 구도심 지역 재생사업 추진

2024년까지 생활기반 개선

화순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화순읍 광덕리 일대 구도심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 관리자, 인정사업 3가지 유형으로, 화순군은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 시설 공급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면적은 10만㎡ 미만, 사업 기간은 3년이다. 해당 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사업으로 화순읍 광덕리 일대 구도심지역(면적 2456㎡)이 대상이다. 군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

억(국비 36억)을 투입, 생활 SOC와 문화·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쉼터(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커뮤니티센터 운영프로그램, 만연천 산책길 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중근 화순군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원동력은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며 “낙후된 화순읍 구도심 지역의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광덕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강진 특화품목 목은지, 농가 소득 증대 효과

김장철 인기...올 매출 15억 예상

국내 김치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강진 목은지가 소비자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강진 목은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 지난해부터 목은지 산업화 사업을 통해 목은지를 강진 대표 특산물로 육성시킨 강진군은 목은지 사업단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특화 품목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군은 ‘강진 목은지’ 표준 매뉴얼을 정립해 강진과 인근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하여 목은지를 생산·판매했음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까지 고려했다. 군은 또 매월 정례회를 개최해 시장 정보 공유,

위생 및 고객응대 교육 실시 등 강진 목은지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에도 동참하는 등 안심 먹거리 정착에 박차를 가해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요동했던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 결과 올해 강진 목은지 사업단 중 14개소 업체 목은지가 품질 됐으며 2억 50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했다. 강진 목은지 사업을 희망하는 신규 농가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단기간에 33개소 업체가 영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9개소가 영업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강진 목은지 참여 농가는 김장철을 맞아 약 5만 포기의 김장을 완료했으며 15억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